

산림경영을 위해선 대면적산림이 필요

자료 : 산림청 임정과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10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여야 하며, 부재산주라고 하여 산림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대면적 부재 산주는 소재산주보다 오히려 산림을 더 잘가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산주는 상속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사유림 소유자의 경영의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0.5ha 이상 사유림소유자들은 평균 4.7ha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산림소재지 시군내에 거주하는 소재산주(4.1ha)보다는 부재산주(5.8ha)가 더 많은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하고 있는 산림면적중 시업제한치를 제외한 경영가능 산림면적은 평균 79.6%로서, 산간지역에 소재하는 산림은 89.3%가 경영가능 산림인데 비하여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림은 25%만이 임업경영이 가능한 산림이고 75%의 산림이 다른 법률등에 의하여 임업경영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시업제한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림 소유자의 주업은 농·축산업(56.9%)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4.9%), 봉급생활자(4.8%)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반면 임업과 임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는 18%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50ha 이상 소유계층서 부터 임업과 임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500ha 이상 소유계층은 임업과 임산업을 주업

으로 하는 자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목적과 동기는 ① 상속(45.6%), ②재산증식(19.2%), ③묘지용(10.6%), ④임업경영(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업경영 목적의 산림소유율은 30~50ha 소유계층서부터 극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00ha 이상 소유계층으로부터는 임업경영 목적의 산림소유비율이 타목적으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과 대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경영 목적의 산림소유지를 소재·부재 산주별로 나누어 보면 소재산주는 6.6%가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재산주는 10.1%가 임업경영을 위하여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영림계획 제도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79.2%가 존치시켜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20.8%가 폐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여 산주의 대부분이 현행 영림계획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영림계획작성 경비의 보조확대와 영림계획작성 대행기관의 활성화가 요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년간 영림계획상 산림사업실행 계획이 있었던 산주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실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조림은 1인당 2.4ha, 육림은 2.7ha, 간벌은 2.2ha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ha 이상 산림소유계층은 조림 37.1ha, 육림 47.

2ha 및 간벌 28.3ha를 실행함으로써 적정규모의 산림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100ha이상의 산림을 소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부채산주별로는 산림사업실적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500ha이상 소유계층은 부채산주가 소재산주보다 산림사업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부채산주가 산림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산림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겪는 애로사항은 투자자금의 부족(36.2%)과 투자이익의 부진(30.3%)이 가장 큰 것으로 타나났으며, 산림소유규모가 클수록 투자이익은 높으나,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산림사업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 5년간 산림내에서 입산물을 생산·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는 27.1%로서 판매금액은 대부분이 1,000만원 미만이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산물 판매대금의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생활자금(44.1%), 임업경영투자(19.2%), 사업자금(13.4%)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산물판매대금은 임업경영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입산물 판매대금의 임업경영재투자율은 30ha이상 소유계층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100ha이상 소유계층으로부터는 임업경영 재투자율이 다른 용도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업용기계의 보유상황을 살펴보면 손톱(72.6%), 육림용낫(26.9), 운반용차(13.4%), 기계톱(10.6%)등 간단한 임업용기계는 비교적 보유율이 높은 반면에 집재

기(0.2%), 가지치기용 기계(0.7%), 풀베기용기계 3.1%는 보유율이 아주 낮음으로서 임업기계화를 위하여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뒤따라야 할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업용 기계의 보유율은 산림소유규모가 클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100ha이상 소유계층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업기계화를 위하여는 협업경영등을 통하여 산림면적을 대규모화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으로 5년간 산림면적을 증가시킬 것인지 아니면 감소시킬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46.1%가 산림면적을 증가시킬 계획인데 비하여 53.9%가 산림면적을 감소시킬 계획에 있어 산림면적을 감소시키겠다는 산주가 더 많았으며, 소·부채산주별로는 부채산주보다는 소재산주가 산림면적감소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을 감소시키는 주된 이유는 의욕부족 29.8%, 자금부족 17.2%, 타용도 전용 14.6%, 등으로서 투자이익의 부진과 자금부족이 산림면적 감소계획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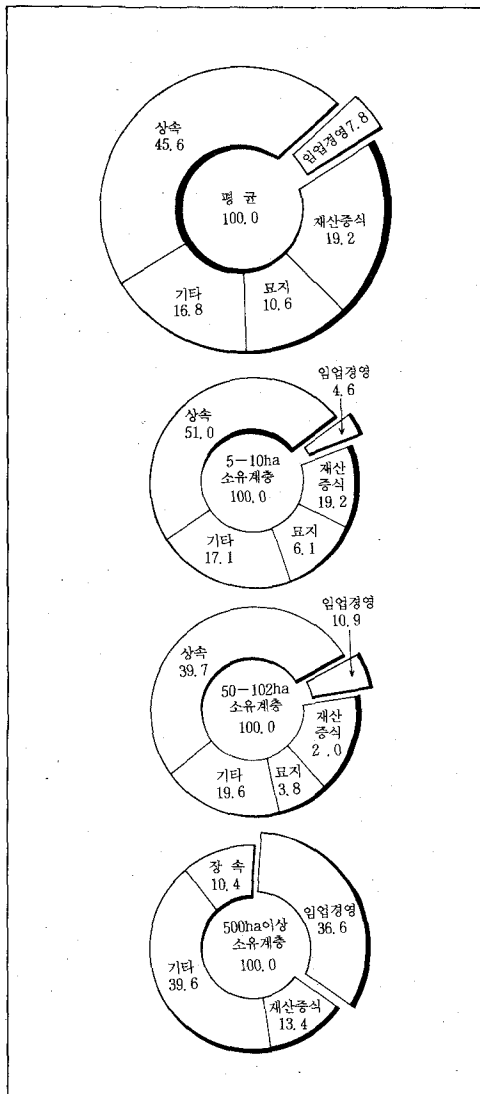
또한 금후 5년간 조림 및 벌채 희망방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위탁 43.6%, 자영 20.7%, 업자청부 10.3%,로서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실행하겠다는 응답자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업기술지도 희망사항을 살펴보면 조림, 육림, 벌채등 산림사업방법 36.3%, 특용 입산물 생산기술 24.3%, 임업경영방법 24.2%,로서 대부분의 산주가 임업기술지도를 희망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의 6.5%만이 임업기술지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산림소유규모계층별로 임업기술지도 희망사항을 분석하면 소유규모가 클수록 임업경영방법지도 희망자가 증가한 반면 특용임산물생산기술지도 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조림, 육림, 벌채방법에 대한 기술지도는 모든 계층이 일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조사결과는 산림청에서 전국 사유림소유자의 1%정도인 19,4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서 산림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주에 대한 지원 육성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림소유목적(동기)



경영기능 산림면적율

